

여학생처 신설을 제안합니다

이현희는 75년 9월 충남 대천에서 태어나서 82년에 충남 한내국민학교, 87년 대천여중, 91년 대천여고, 94년에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에 입학하였다. 동아리는 흡사랑에서 95년에는 1학기 과학년장, 흡사랑 교사, 제 11대 총여학생회 학술부장으로 일했으며 제 12대 총여학생회에 회장으로 출마하였다. 국미애는 75년 4월 서울에서 출생, 흥은국민학교, 문명여중, 상명사대부고를 다녔고 94년에 서울시립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1학기 부학년장, 경영경제연구회에서 일하였다. 95년에는 과학생회장 총무, 우리역사연구회 총무로 있다가 부총여학생회장에 출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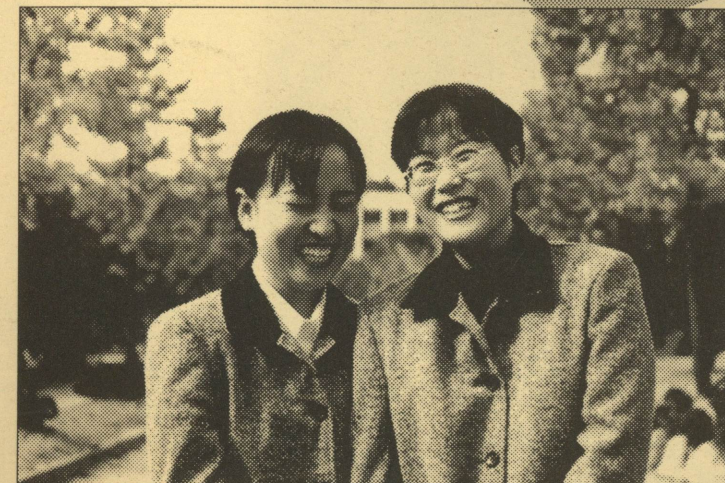
총여학생회가 여학우들의 공동체로서 활동을 할 때 학생회에서는 처리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담당하는 곳으로 여학생처가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여학생처는 주로 여학생의 처우 개선, 여학생 복지와 사회진출에 대한 일들을 하고 성폭력 상담소를 운영하며 대책을 마련하는 일을 합니다. 행정상에서 풀어야 할 문제를 여학우와 함께 해결하는 곳, 여학생처의 설립은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不妊의 時代

서태지의 옥동자가 팔 하나를 잘린 날에
노태우의 문어발을 가진 기형아가 탄생했다.
노태우의 기형아는 피고름의 자궁속에서 오래오래 키워져서 오래전에 사라지고 없다는 공통보다 큰 놈이 되었다.
모두들 공통을 없애는 필승의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웬걸, 신나는 군가를 부르며 전투에 임할 줄 알았던 30년 경력의 민주투사 두 분과
소박맏고 정신차렸다는 노인네 한 분. 그리고 그 옆에 목청 좋은 펜대들.
이제야 알겠다. 그동안의 구역질이 왜 헛되이 되풀이되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1995년 그들이 대한민국을 지배했을 때 하늘이 요동치는 사연을.
오늘 밤엔 돈벼락 맞는 꿈 개꿈을 꿀 것만 같다.

시대 공감 행복한 반란



침묵속엔
변화가 없다. 변화는
움직이는 곳에만 있
다. 변화를 꿈꾸는
우리는 이제 시대의
행복한 반란자가 된
다.

이현희 국미애 선거운동본부

법이냐면 법이 법으로세이 하여물 처져야하는

지성과 진보라는 개념은 사라지고
 남은 권위와 경쟁만이
 앙상하게 남아 있는 대학
 여성과 남성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 놓고 그 자신의 특성,
 인간의 특성이 아닌 성으로
 판단하고 속박하는 사회
 자본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본의 생각에 맞춰
 춤추라고 위협하는 세상
 우리를 둘러싼 많은 문제들에 대한
 인식과 해결에 홀로서기는
 너무나 벅차기에 현실의 문제를 느끼고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들은
 현실인식을 공동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며
 세상에 대한 저항의식을 하나로 묶어
 대학이라는, 학생회라는 우리 안에서
 풀어가기 위해 나서고 싶다

그 저항은 변화이다
 우리는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 주체로 함께 선다
 모순투성이 세상에 대한 반란자가 된다

우리 모두가 호흡 맞출
 그 공동체의 건설에
 일그러진 우리세대를
 울곧게 세우는 반란에
 현회와 미래는
 시대 여학우, 시대 남학우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대학의 지성 찾기

행복한 대학 생활을 위하여

사회로 열린 대학 저항과 연대, 대학의 지성을 찾아

우리 앞에 놓인 좁은 문
 잠시라도 결눈질 하면 어
 느새 내자리는 뒷전
 그 문의 열쇠를 쥔 사람
 들은 우리를 향해 외칩니
 다.
 쉬지마라! 너
 희를 둘러싼
 세상을 보지
 마라! 경쟁력
 을 키워라!



오로지 앞만 보고 전진해
 라!

자연히 우리 역시 자유로
 울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과감하게
 도전하며 진리와 학문을
 탐구하고자 하는 우리들
 은 사회의 일부분으로서
 발언할 권리를 가지고 있
 습니다.

사회로 열린 대학이란 발
 언과 도전이 자유로운, 또
 이런 긍정성들을 확대해
 나가고 그래서 사회에 청
 량제가 될 수 있는 대학
 의 모습입니다.



자율과 자치의 대학 우리의 학생회, 움직이는 학생회

총여학생회는 여학우들
 이 모여 움직이는 자치기
 구여야 합니다.
 또 학생회는 공개와 참여
 가 기본이라고 흔히 말합
 니다. 기본을
 지키는 학생
 회로 총여학
 생회는 여러
 분 가까이
 서겠습니다.

이는 우리학교에 존재하
 는 다양한 여학생모임의
 특성을 살리는 것으로 부
 터 시작될 것입니다.

여성문화 여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자

오로지 남성만의 것, 여
 성만의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한편의
 시각으로 기울어진 세상
 은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또 비틀어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새로운 시각으
 로 보는 세상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이 지배
 하는 세계와는 분명 다를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삶 또한 풍부해질 것입니
 다. 여성의 눈으로, 지금
 과는 다르게 보는 법을
 터득한다면 세상도 조금
 씩 바뀌지 않을까요?